

문 대통령 “내년 달 궤도선·2030년 달 착륙...7대 우주강국 도약”

나로우주센터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 성공 참관 “민간 발사체 기업 성장 적극 지원...스페이스X 같은 기업 국내도 나오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한 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험 성공에 대해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은 실제 발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완료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됐고, 민간이 혁신적인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이스 엑스”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로우주센터에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발사장을 설치하는 등 민간 발사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정와대는 7대 우주강국에는 한국 외에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정 총리 “경제·민생회복 시계 앞당기도록 추경 집행에 총력”

“국민들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사업 집행 속도 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 “코로나 19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시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턱걸이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추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국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추경규모는 14조 9000억원으로 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줄이는 대신 농림어업 피해지원, 운수업계 피해지원 등이 증액됐다.

정 총리는 “임시국무회의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확정하고 집행에 착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

를 내달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한 피해지원대책에는 중소기업,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전보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었다”며 “관련부처는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제 국회에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LH 5+1법 중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원활한 법 시행 준비와 함께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등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6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다.

2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201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최초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첨병으로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참수리 357호정, 천안함 선체 등이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다.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과 정부 주요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규모는 축소됐지만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해수호 의지를 담은 행사로 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게 진행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는 손원일 제독이 작사하고 홍은혜 여사가 작곡한 해군 군가 ‘바다로 가자’에서 발췌한 문구로 서해수호 55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참전 장병들의



국가수호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

기념식은 해군 박보검 일병과 국방홍보원 정동미 대위의 사회로 국민의례, 헌정연주, 기념사, 합창 및 함정출항 순으로 진행된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 정장으로 북한과 교전 중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

다.

애국가 제창 시에는 해군특수전전단(UDT), 해병대수색대, 육군·공군 특수임무부대원들이 ‘서해수호 55용사를 기억하자(Remember 55 Soliders)’는 의미를 담은 국제신호기를 매달고 고공에서 강하한다.

이어 첼로 연주가 홍진호 등이 헌정곡 ‘See you again’(분노의 질주,

‘폴 워커’ 추모곡)을 연주한다.

마지막으로 ‘바다로 가자’ 등 군가를 합창하면 경기함 등 전 함정들이 기적을 울리며 출항한다. 이 때 마린온, 링스 헬기 등이 출격해 서해수호 55용사의 정신을 이은 우리 군의 강력한 서해수호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 등을 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는 지역별 기념식, 서해수호 유가족 위문과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제11주기 천안함 추모식, 특별사진전, 추모편지 쓰기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기념식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묘역에서 참배하고 유가족과 참전 장병을 위로할 예정이다. 올해도 대통령의 추모 화환 55개가 용사의 개별 묘역에 각각 비치된다.



최광수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치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 강의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인 [더불어 주거정책]에서 진행하는 '더불어 사는 경기, 함께 만드는 주거정책' 온라인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기도민의 주거불안정 해소 및 다양한 주거선택권 모색과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표의원인 고찬석 의원과 실무책임위원 유진선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위원인 이기형 도의원, 실무부책임위원 황소제 시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시·도의원 2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고찬석 도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전 세계

의 주식 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려는 열광, 빚투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공공주택정책의 우수한 선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는 새로운 전환을 여는 기회가 됐고 지금 우리가 처한 주택문제와 부동산 위기를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정책을 전환시킬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적기"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현재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공공성을 강화'하는 투 트랙 체제로 전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의는 문영록 이사와 김준호 부대표가 진행했으며 문영록 이사는 주거에 대한 인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지자체의 지역 상생을 고려한 주거정책마련 및 주택 공급·기금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부대표는 해외 사례와 국내 최초 아파트형 협동조합마을공동체 형태인 '위스테이 별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건설사를 단순 도급으로 전환하고 분양 시 자본 이익의 주체를 공공·임주자·시민·협동조합 등으로 다변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특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최근수/기자

목포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김원이 의원 노력 돋보여

전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목포시 5개 학교 선정, 향후 494억원 투입

어제(3월 23일) 발표된 목포지역 5개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결정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보좌관을 역임했던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의 적극적 중재와 노력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미 작년에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을 파악했다. 이후 교육부 담당 과장 및 전남도 교육청, 목포시 담당 과장과 회의를 주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혁제 전남도위원과 교육부 담당국장과 면담을 주재하고 목포지역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수차례 강조했다. 사업 확정시기에 이르러서는 직접 세종시를 찾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찾아 목포지역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남 지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목포시 5개 학교가 선정됐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

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서, 단순한 공간혁신을 통한 환경생태, 디지털 교실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직접 만들어가는 참여형 사업이다.

이번 발표로 목포 지역에는 ▲목포동초 2동 176억원(개축), ▲목상고 2동 114억원(개축), ▲목포이로초 2동 122억원(리모델링), ▲목포용호초 1동 45억원(리모델링), ▲목포여중 1동 35억원(리모델링) 등 총 5개 학교(8동)에 총 49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경험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는 데 한 몫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선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목포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정윤경 의원, 군포문화예술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3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군포문화예술발전 어떻게 해야 하나?' 좌담회에서 군포지역 문화예술단체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좌담회는 최영환 경기도청 예술정책과장을 비롯해 군포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등 군포시 문화예술단체장 17명이 참석했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공연 전시 등 예술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포시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하는 강신웅 군포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의 '지역예술인 쿠키제' 도입과 '예술활동증명제도' 행정절차 간소화 제안을 시작으로 공모사업 선정기회 확대 및 선정결과 공유, 공모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군포문화원은 장례식장이 '문화원'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경기도의 제제

구, 타시도 작가 초대 전시회 기회 제공, 지역특성에 맞는 예술정책, 지역전문예술단체 고용 유지를 위한 중·장기 지원정책,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인 취업사이트 지원 등 지역예술단체들의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환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기본은 예술활동증명제도 주위에 꼭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내에 설치된 '예술인상담센터'에서 공모사업 신청 서류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라고 안내"하며 "공모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예산을 지역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제시한 의견들은 최대한 검토 후 가능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정책이나 지역중심 문화예술 지원정책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소통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하고 "오래된 지역의 상주단체 고용유지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만식/기자

김명선 충남도의회,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방문

환경미화원 애로사항 청취...산업·생활 폐기물 안전 처리 당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25일 지역의 위생과 환경을 책임지는 당진시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가곡환경을 방문해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곡환경은 도시나 마을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다.

지난 한 해 수집·운반량은 5만 2000톤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른 새벽부터 묵묵히 일을 도맡고 계신 환경미화원과 업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덕분에 거리가 더 밝게 빛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업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도의회에서도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 전 당진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시찰하고 처리 과정에서 주민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한번 훼손된 자연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며 이를 회복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과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오광영의원 올레브 버스 시민의견청취 간담회"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한 '대전시 올레브 버스 노선 시민의견청취 간담회'가 25일 오후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 오광영의원이 진행을 맡고 황은주 유성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전시 박범산 과학산업과 특구협력팀장은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무선전력 전송 기술을 반영한 올레브 On-Line Electric Vehicle) 무선충전 전기버스의 추진상황과 노선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이스트 학생과 온천동 주민들은 카이스트를 통과하

는 노선버스가 생긴 것에 대해 환영하고 버스노선이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와 인근 지하철역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광영의원은 "올레브버스는 대전시와 카이스트, 연구개발특구가 합심해 신기술 버스를 테스트 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오랜 숙원인 학교 통과 노선버스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말하고 "시민의견을 토대로 최적의 노선을 정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힘을 보탬 것이다"고 약속했다. 김원호/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부회장 박유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편집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주민에게 믿음 주는 의회 영양군의회

영등포구, 취약계층 위한 긴급임시주택 마련

모텔에서 생활하던 위기 아동 주거빈곤가구 임시 거주키로

영등포구에 퇴거 위기에 놓인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복지 보장을 위한 긴급임시주택이 관내에서 처음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면서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위기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 거주지가 없는 위기 가구들이 지역을 이탈하거나 모텔이나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내 운영되고 있는 긴급임시주택 약 50여 개 사례와 같이 영등포에도 긴급 거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대비한 긴급임시주택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결성된 '영등포구 아동 주거권 향상 민간 네트워크'에서 긴급임시주택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 초목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연대 3자 협약을 통해 지역 첫 긴급임시주택이 지난해 12월 설치됐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마련된 긴급임시주택은 방 2개가 있는 약 20여㎡ 규모로 거주지를 확보할 때까지 최대 1년 이내로 거주할 수 있다.

생활에 필요한 가전·가구 등 제반 시설도 구비돼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임대 만료 또는 월세 미납 등 다양한 이유로 퇴거 위기에 처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보장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에 설치한 긴급임시주택은 주거상실 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주지 역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간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입주한 주거 취약 위기가구의 주거복지 상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긴급임시주택의 첫 입주자로는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던 위기 아동 주거빈곤가구를 발굴·선정했다.

구는 향후 해당 가구에 긴급사례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이충로 관장은 "향후에는 현 네트워크 기관뿐 아니라 더 많은 기관들과 함께 주거 네트워크를 맺고 영등포구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영등포주거복지센터 김완수



센터장은 "관내 최초 설치된 긴급임시주택이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안정된 주거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간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구내 긴급임시주

택이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중추적 역할과 함께 공공거주지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거 복지제도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구로구 "지역문제, 주민과 함께 해결한다"

'민관협치사업 의제 공모'... 다음달 9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구로1번가' 및 구청에서 접수

"지역 발전 위한 좋은 아이디어 찾습니다" 구로구가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24일 "주민들에게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2022년 민관협치사업 의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교육, 문화, 환경, 안전, 교통, 일자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주민과 구청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다수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단, 단순 민원, 시설 설치, 건의·진정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는 구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구청 홈페이지, 구글폼 설문조사 또

는 구청 협치정책보좌관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 구로구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4월 부서 검토, 5월 주민·담당부서 간 공론장, 6월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협치'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치'의제는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해 내년에 추진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민관협치 의제 공모를 통해 구정 운영에 민주적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스스로 더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 수 있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노원구, 공릉동 '뚝가비마을' 경춘선숲길 품은 명품마을로 변신

경춘선숲길과 어우러진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나

서울 노원구가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공릉동 뚝가비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2억 7천여만원이 투입된 공릉동 503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뚝가비 마을은 인접한 경춘선 숲길, 도깨비 시장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명품마을로 탈바꿈했다.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 대신 공동이용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사업이다.

뚝가비 마을의 환경개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 역할을 할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골목길 환경 개선 노후된 공원 개선 사업이다.

먼저 '경춘선숲길 품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공릉동 559-17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54.37㎡ 규모로 건립됐다.

'뚝가비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맡아 운영한다.

총별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지하1

층 공동작업장에서는 누룽지, 수제정 제조, DIY 공방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한다.

1층은 경춘선숲길을 산책하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꾸몄다.

2층은 공유주방으로 1~2인 가구의 공동취사 공간과 저소득층 자녀, 독거노인의 식사제공 장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3층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방과후 교실, 주민 강좌 개설 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층은 주민공동체운영회 사무실로 조성해 주민을 있는 교량 역할을 한다.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은 낡고 오래된 골목길 2곳을 밝은 색의 보도블록으로 산뜻하게 포장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넣어 안전한 보행길로 만들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총 24개소의 CCTV를 설치하고 20대의 보안등도 정비하는 등 안전시설도 확충했다.

뚝가비 마을 내 '해오라기 공원'도 조성된 지 40여년이 지난 공원은

시설 노후로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조합 놀이대를 교체하고 정자와 모래바다, 담벼락 등도 개선해 마을 어린이들의 쾌적한 놀이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뚝가비 마을은 주민들의 주거공간 개선 과정에 주민협의체가 참여한 도시 재생사업의 모범사례"며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폭넓게 교류하고 마을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금천구, 2030년까지 온실가스 27만 5천톤 줄인다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

금천구는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7개 부문 3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7만 5,000톤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2017년 배출량 126만5,000톤의 16.4%로 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축정책 추진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건물 수송 신재생에너지 LED 폐기물 외부 사업 가정 등 7개 분야 33개 과제를 선정, 매년 기후변화 대응 203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적평가와 환류를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 건물부문 '친환경 건축물 보급 사업 확대',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 등과 수송 부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수소 및 전기 충전소 보급 확대', '에코드라이빙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베란다 및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가정 부문은 '승용차 및 에코마일리지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추가 조성' 등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수목식재사업의 경우 현재 정주지 부문에서의 수종별 온실가스 계수를 개발하고 있어, 2024년 연구개발 완료 이후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이라는 환경 비전 아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친환경 기술진보 및 소비촉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 한분 한분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과 함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성/기자

박남춘 시장, 추신수 선수에 e음카드 깜짝 선물 '눈길'

홈구장 첫 시범경기 열린 25일 선수단 격려 및 구장 방역 점검차 방문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SSG랜더스 야구단에 합류한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 추신수 선수에게 인천 대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를 선물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천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추 선수를 환영하는 한편 인천시민들이 애용하는 인천e음카드 선물을 통해 지역 사랑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인천SSG랜더스필드를 찾았다.

이날은 랜더스 선수들이 홈구장에서 첫 번째 시범경기를 갖는 날로 선수단 응원과 함께 야구장 방역 상태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추 선수와 함께 이번 시즌 랜더스에 전격 합류한 김상수·최주환·월버 폰트·아드리우키 선수 등 신규 영입 선수 4명에게도 인천e음 카드를 선물했다.

인천e음 카드 선물은 인천의 새 연고팀인 랜더스에 합류한 선수들에게 유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기념품을 주자는 박 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인천 프로야구의 역사를 이어갈 SSG랜더스가 인천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추 선수를 비롯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새로운 연고지·구단에 잘 적응해 인천시민의 사랑을 이어받길 바라는 의미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인천출신 배우 최철암에게도 e음카드를 선물한 바 있으며 인천시 홍보대사인 아역 배우 문우진·힐합 트리오 리드파워 또한 SNS 등을 통해 e음카드 인증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인천e음은 인천의 대표 지역사랑

화폐로 23일 기준, 총 가입자는 144만 6,184명, 발행액 7,297억원, 결제액 2,802억원에 달한다.

박 시장은 "인천 연고팀에 온 선수들에게는 인천e음 카드가 있으면 유용할 것 같아서 직접 챙겨왔다"며 "인천의 소상공인 팬들을 위해 e음카드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민경삼 SSG랜더스 대표이사, 류선구 단장, 김원형 감독 등과 티타임을 갖고 구단 현황과 방역상태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선수단을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방역 마스크를 건네기도 했다.

마스크에는 '인천시가 응원한다 SSG랜더스 V5'라는 문구를 새겨 SSG랜더스의 선전을 기원했다.

박 시장은 "세상에 없던 프로야구단"을 선보이겠다고 인천에 상륙한 SSG랜더스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며 "올 시즌 랜더스의 한국시리즈 V5를 응원하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구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방/기자



인천시, 시민참여로 스마트 도시 만든다.

연수구·미추홀구·동구 '인천시 시민참여 스마트도시 리빙랩' 공모 선정

인천광역시 연수구·미추홀구·동구를 위해 '시민참여 인천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 인천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은 지역주민·정보통신기술 전문가·기초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긍정적 변화를 이끈다.

또한 도시문제를 시민이 직접 모색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지자체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연수구는 장애인친용 주·정차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

기 위해 불법 주·정차 건수를 감소시키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위반차량 관리의 어려움을 개선할 일환으로 IoT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장애인친용 주·정차구역 무인 단속 시스템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추홀구는 '환경특별시 인천'에 걸맞은 스마트기술기반의 주민참여형 자원순환모델을 구축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배달용 일회용품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자원순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ICT 활용 배달 일회용품 절감·대체 시스템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구는 아동친화인증 도시로서

아이들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리빙랩을 통해 기존 송림도서관 내에 가상 현실체험관을 활용해 ICT기술을 접목, 비대면 맞춤형 아동권리 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스마트한 슬기로운 어린 이생활 플랫폼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지난해 첫발을 디딘 추진 사업에 더불어 올해 또한 지속가능한 인천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더욱 유기적인 리빙랩 사업의 확장과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충남/기자



인천시, 新산업 R&D 혁신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산학연 손잡고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뉴딜 국가공모사업 유치 추진

인천광역시 지역 전략산업 및 D.N.A.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의 미래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R&D 활성화 사업’은 그간 산학연 관계자 회의 및 정책개발 토론회를 거쳐 체계적 R&D 관리시스템 구축, 기업 R&D 고도화, R&D 국책사업 기획·유치 등의 시책을 담았으며 2020년부터 5년간 약 2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에도 총 16억의 사업비를 편성해 기업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R&D기획 컨설팅 지원 신성장동력 R&D사업 R&D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 R&D사업 유치를 위한 국책사업 기획 연구회 운영 지원사업과 국가 공모사업 매칭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앞으로도 R&D 과제 발굴부터 성과 사업화까지 단계별 기업 R&D 지원을 통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산학연과 협력해 에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에 걸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132억원 규모의 국가공모사업에도 도전장을 낸다.

시는 4차 산업혁명을 지역 산·

학·연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역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미래 산업 발굴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시민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라는 비전과 3대 전략 19개 과제를 골자로 하며 2020년에는 682.6억원 규모의 28개 사업을 수행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해 뉴딜 국가공모사업 응모를 지원했다.

2021년에는 인천형 뉴딜사업 발굴기획, 4차 산업혁명 협력네트워크 운영,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 그리고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에 고성능 AI 분석 서버를 설치해 시민과 기업들이 디지털 뉴딜·서비스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핵심기술기반센터’ 운영 사업 추진으로 2021년 뉴딜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에듀테크 분야로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구축 및 운영사업, 블록체인 분야로는 스마트캠퍼스 챗봇사업과 정보보호 컨설팅 및 솔루션 도입 지원 사업, 빅데이터 분야로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 등을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응모를 준비



중에 있다.

시는 또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일환으로 시민이 직접 내용을 의견과 솔루션을 소프트웨어 기술개발로 연결하는 ‘인천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주도의 혁신문화 조성을 도모한다.

인천 SOS랩 사업은 인천의 아동문제를 시민과 아동, 기업이 협력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SW솔루션을 개발하는 시민주도 사업으로써, 기존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98억원이 투입되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인천시 등 6개 유관기관은 인천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데

이터 및 네트워크 공유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SW솔루션 또는 제품 실증을 위한 상호 협력 인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아동문제 해결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인천 경제 역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를 계기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동력으로 인공지능·데이터 융합 등 지역경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 R&D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성/기자

용진군, 연생식물 군락 확대 조성으로 그린뉴딜 실현

인천시 용진군은 용진 그린뉴딜 실현의 일환으로 올해 연생식물 조성 사업 규모를 영흥면 내리 197의 6 일원에 4.1ha와 선재리 398의 9 일원에 3.1ha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생식물 조성 사업은 113개 섬으로 이루어진 용진군의 장점을 활용해 볼거리·즐거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적 내만 갯골을 제외한 인위 조성 지역은 전국 최초이다.

연생식물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종 다양성을 보전하고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등 해안 생태계에 유익한 식물이다.

또한 계절에 따라 녹색, 갈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으로 변해 ‘바다의 단풍’이라 불리며 해양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은 지난 3일부터 영흥면 내리 어촌계원과 선재리어촌계원의 협조를 받아 72,129㎡ 면적에 연생식물 4종의 1차 파종을 마쳤다.

내리·선재리어촌계장은 “연안정화 활동, 지역일자리 창출, 나아가 관광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생식물 군락지 조성으로 환경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진군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2020년도부터 시작한 연생식물 시범조성 사업을 체계적 관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료해 갯벌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동작구, 2년 연속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공모 선정

신대방1동 골목상권 40개 업소의 점포 내·외부 리뉴얼 상품 디스플레이 인쇄물 디자인 등 지원

동작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1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원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는 ‘아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회화·전시·공예 등을 전공한 지역예술가와 매칭해 점포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신대방1동 골목상권 40개소의 점포 내·외부 리뉴얼 상품 디스플레이 디자인 인쇄물 디자인 작업에 지역예술가를 매칭 하는 내용으로 공모해 이달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소상공인은 소규모 가게의 특성을 살린 인테리어 개

선으로 매출을 높이고 지역예술가는 소득 창출과 함께 재능을 펼칠 공간을 확보하는 등 협업을 통한 상생 차원에서 추진했다.

구는 다음 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에 참여할 가게 선정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40개 점포에 지역예술가 15명을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거나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가게 등을 우선 선정해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가의 상생을 도모하고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성동구, 협치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열린분과원 모집

4개 분과별 15명씩 총 60명 모집된 열린분과원은 내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 발굴 과정 참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성동구 협치회의 열린분과원을 모집해 다양한 영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확장된 협치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사회혁신계획(협치)이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략계획을 말하며 성동구협치회의는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열린분과원은 협치 기본교육 수료 이후 성동구협치회의 위원들과 함께 2022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 발굴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협치회의 위원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분과원을 공개모집해 분야별로 보

다 심도 있는 속의 공론과정을 거치고 영역 간 융합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성동구협치회의 분과로는 경제산업, 교육문화, 마을자치, 보건복지가 있으며 관심있는 분야로 선택해 지원이 가능하다.

열린분과원 공개모집 인원은 4개 분과별 15명씩 총 60명이며 지원방법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 고시/공고 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이메일(gihoek@sd.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진 협치 기반과 경험은 지속가능한 협치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민관의 협력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열린분과원 모집

모집기간: 2021년 3월 17일(수) ~ 3월 31일(수)

모집대상: 성동구 주민 누구나 (소제 직장인, 대학생 포함)

열린분과원 역할: 2022년 성동구 민관협력(협치) 지역발전 의제 발굴

분과영역:

- 보건복지분과: 복지(정책),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등
- 교육문화분과: 교육, 문화, 체육, 평생학습, 어르신, 청소년, 청년 등
- 마을자치분과: 주민자치, 마을, 마을 공동체, 환경, 안전, 교통 등
- 경제산업분과: 산업, 도시재생, 일자리,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등

활동기간: 2021년 4월 ~ 12월

신청방법: '열린분과원 신청서' 이메일 제출 (edgihoek@sd.go.kr)

문의: 기획예산과 민관협력추진단 ☎ 02-2286-6526

연수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기획전 실시

오는 25일~28일 송도 홈플러스 지하 2층 '그루' 진행

연수구·충남사회적경제가 만나는 사랑살랑 봄맞이 기획전

일시: 2021. 3. 25(목)~28(일) 12:00~19:00

장소: 연수구사회적경제판매장 '그루' (송도 홈플러스 지하 2층)

문의: 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Tel. 032-815-8472

연수구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송도 홈플러스 지하 2층에 위치한 판매장 '그루'에서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사랑살랑 봄맞이 기획전'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대형 유통매장과 협력해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새로운 영업 판로 개척과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송도 홈플러스 내 연수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판매장인 '그루'에서 연수구 15개 기업과 충남 9개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에는 소상공인의 판

매지원을 위해 연수구뿐만 아니라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청남도,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 할인, 구매고객 대상 2만원 이상 구매 시 추첨을 통한 사회적기업 제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현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지역 특산물 제품 소개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판로 개척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손톱 밑 가시를 찾아라 서대문구 규제개혁 공모

복지, 일상생활,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개선돼야 할 규제나 애로사항 제출

서대문구는 주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1년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는 복지 일상생활 취업과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산업 등이다.

서대문구 거주자나 서대문구 소재 직장, 학교, 단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특히 구는 방문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청년 벤처기업과 캠퍼스타운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개선돼야 할 규제나 애로 사항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관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

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7월 중에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정, 발표하고 구청장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는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내용을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우수자 유일하게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발굴로 지역경제와 민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홍성군,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위해 불법 노점상 집중단속

홍성군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군은 불법 노점상의 난립으로 보행자들의 통행권이 제한받고 교통이 정체되는 등 주민불편을 유발함에 따라 이달 불법 노점상 단속원 2명을 채용, 주요 도로변과 인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도로변에 정차한 채 물건을 판매해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노점, 인도 내 상품 진열 및 판매 행위,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상행위, 고정식 포장차차, 철주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와 노상에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군은 이번 단속이 소상공인들

의 생계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자진원상복구 등 계도 중심의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의 상습 고착화 방지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주환 건설교통과장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목포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4월부터 노을공원 등 민원다발지역 8개소에서 실시

목포시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목포시 등록 반려견은 23일 현재 7,298마리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지 등 동물보호법 미준수 신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부터 반려동물 민원 발생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감시단을 배치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 준수 및 팻티켓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장소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 다발 지역인 노을공원, 평화광장, 삼학도 공원 등 8개소이며 외출시 반려견 인식표·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등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관리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불법 주정차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관리 되던 체납자 중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 통보를 받은 법인 체납자 12명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규정에 의한 이번 결손처분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중 총 739건, 54,821,620원으로 기간 재산압류, 납부촉려 등 과태료 납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파산 선고 등으로 재산이 없어 징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돼 결손

처분 한다고 했다.

일산서구 구청 관계자는 “향후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 독촉고지서 발부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산이 없어 부득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는 등 과태료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해 효율적 체납관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장성군, 4월부터 황룡시장 주정차 흠잡제 단속

황룡면 현대떡방앗간~황룡마트 구간... 3월까지 계도, 4월 본격 단속 예정

장성군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황룡시장 주정차 흠잡제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지역은 주정차 흠잡제가 시행 중인 황룡면 현대떡방앗간에서 황룡마트까지 350m 구간이다.

흠잡날에는 왼편 황룡우체국 방면, 짝날에는 오른편 황룡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데 이를 어기면 단속 대상이 된다.

또 흠잡제 정차가 가능 구역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차하거나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지점은 교통량이 많고 인구 이동이 빈번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

성이 높은 지역이다.

장성군은 작년 10월 이곳에 주정차 흠잡제 시행을 예고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수막과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주민 홍보에도 힘썼다.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장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주·정차 전, 미리 LED 정차안내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오홍곤기자



비전2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실시



평택시 비전2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24일 개학기를 맞아 유해업소 밀집지역 점검·단속활동과 가출·비행 등 위기청소년 발견 시 계도 및 보호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유해환경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술·담배 등 일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인 1조로 팀을 이뤄 점검 및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손찬호 청소년지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영업에 불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 업주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청소년지도를 위해 앞장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주민 분들께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남주기자

안성시, 수입 유기농식품 제조업체 원산지표시 단속



안성시는 25일부터 15일간 관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수입 유기농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관내 유기인증가공업체 16곳을 불시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곡류, 과채, 당류가공품류, 다류, 커피류 등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 가공품을 집중 단속하며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해, 거짓표시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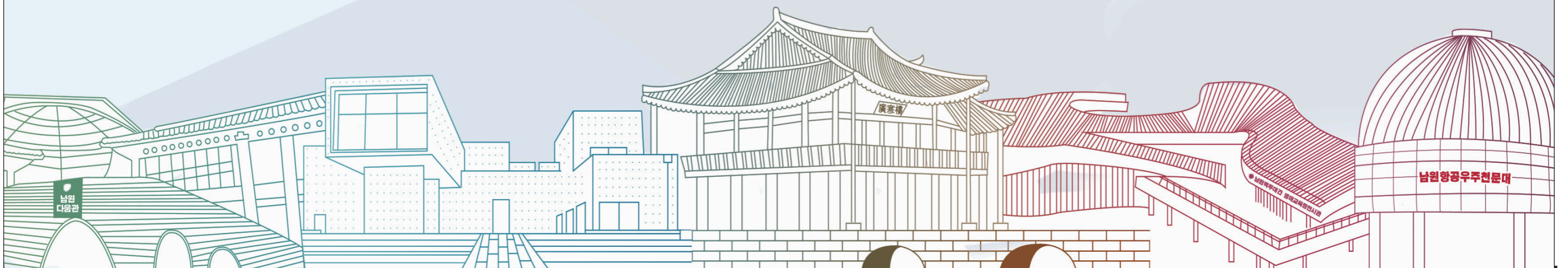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성시는 집중 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농·축·수산업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이행을 통해 관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교육에서 희망을 찾다

안산시, 디지털 배움터 교육생·강사·서포터즈 모집

의정부는 의정부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으로 '교육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엔택트 시대의 창의교육 사업, 의정부형 미래교육 실시,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의정부는 올해부터 특색사업인 의정부형 미래교육 과정을 전체 학교로 확대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길러주고 학교와 지역 유관기관을 운영주체로 지정해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고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별 특성에 맞춘 교육지원 사업으로 직업계고 신입생 운영 지원,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학교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교육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 제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키트 열어봤더니 어느새 봄이. 힐링은 덤으로.

양주시, 2021년 농업기술평생교육 '화훼장식기능사 과정' 교육생 모집

안양시, 영유아 자녀 가정에 모종심기 놀이키트 배부 호응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는 유아와 어린이들의 경우 외부활동이 그리울 수밖에 없다.

따스함이 감도는 초봄을 맞아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안양시가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봄맞이 놀이키트를 무료 배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쇼핑백으로 포장된 놀이키트는 가정에서도 키우기 쉬운 모종 3종과 화분, 영양토 그리고 모종삽과 유아용 장갑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활동이 여의치 않는데 따른 재배의 기쁨을 가정에서 맛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다.

시는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300가정을 선정, 25일부터 27일까지 시청사 광장 드라이브

및 워킹 스루를 통해 배부한다.

배부시간도 동시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전달된다.

배부 첫날인 25일 오전 10시경 최대호 시장이 직접 키트전달에 나서며 자녀와 즐거운 시간이 될 것과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키트를 전달받은 한 여성은 "딸아이가 무슨 선물인지 무척 궁금해 한다며 빨리 집에 가서 풀어보고 함께 화분을 꾸려보고 싶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다.

시는 영유아들이 숲을 찾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온라인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종균기자

양주시는 오는 4월 16일까지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농업환경변화에 맞는 농업기술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교육 '화훼장식기능사'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화훼장식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화훼장식 전문성을 가지고 꽃, 식물, 화초 등 화훼류를 이용해 미적 효과가 높은 장식물의 계획, 디자인, 제작, 유지, 관리하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기간은 오는 5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17회 72시간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화훼장식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국형 꽃꽂이, 서양 꽃꽂이, 꽃다발과 코스지 등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병행해 실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생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화훼장식기능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화훼장식기능사를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다음달 9일까지 모집...누구나, 집 근처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역량부터 취업연계 교육까지

안산시는 시민들의 디지털 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배움터'를 실시하며 교육생과 강사,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배움터는 집 근처에서 디지털 기초·생활·심화 과정을 무료로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분야에서 무인·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디지털배움터는 단원구청 IT교육센터, 본오2동 정보화교육장 등 2곳을 거점센터로 하며 지역 아동센터·동 정보화교육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거점센터까지 포함해 모두 19곳에서 진행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는 디지털배움터는 소규모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으로 병행 실시하며 기본적인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키오스크 및 모바일 금융 스마트폰 상거래 유튜브 활용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디지털배움터 강사 또는 서포터즈로 활동하려는 시민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되고 교육생도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지역인재를 디지털 강사 및 서포터즈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시민의 디지털 이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능력과 의욕이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안중근 의사 서거 111주기 기념해 26일 개관식 개최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이석영 6형제의 결의를 담아 경숙국치의 아픔과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이석영광장 및 역사체험관 REMEMBER 1910 개관식을 개최한다.

이석영광장 및 역사체험관 REMEMBER 1910은 독립 운동에 헌신한 이석영 형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독립 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뜻을 담아 안중근 의사 서거 111주기인 3월 26일 개관식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시민 SNS 서포터즈 및 리포터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으며 조광한 시장은 두루마기를 입은 독립 운동가로 변신해 직접 역사 체험관 REMEMBER 1910의 공감별 의미를 설명했다.

조광한 시장은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1910년 안중근이라는 큰 별은 켜지만, 이석영 형제가 그 뜻을 이어갔던 것처럼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함께 이겨내 새로운 남양주시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석영광장 및 역사체험관 REMEMBER 1910 개관 행사는 오전 10시 20분부터 남양주시 유튜브 공식

채널 'MY-N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시는 개관 행사 중 실시간 응원 메시지를 남긴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치킨과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한, 개관 행사에서는 뮤지컬 안중근 10주년 기념 '누가 죄인인가' M/V 상영을 비롯해 1910년 이석영 6형제가 압록강을 건너던 모습을 석창우 화백의 수묵화 퍼포먼스로 그려낸 '1910년 고난의 망명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문화 감동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말 동안 REMEMBER 1910 체험관 내 미디어홀 대형 LED 패널을 통해 가족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독립영화 2편을 상영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6시에는 '암살', 28일 오후 6시에는 '밀정'이 상영되며 향후 REMEMBER 1910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시민토론회를 거쳐

지금 방안을 마련합니다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모든 광명시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보약같은 심포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 주말에는 도시를 벗어나 푸른 자연과 향수 어린 농사 체험 및 문화체험은 어떠신가요? 푸르른 강과 수려한 산들이 상쾌함을 더하고 고함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보약같은 심포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만나보세요.

경기도, 45억5천만원 규모 지원 기술개발 공모. 1곳당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창업·일반·특화분야 37개 과제 내외... 과제 당 연간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4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총 37개 내외 과제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도 대표 연구개발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940개 과제에 1천511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 6,349억원, 비용 절감 172억원 등 투자대비 5.9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공모는 창업·일반·특화분야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창업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9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은 없다.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일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링크를 게재할 방침이며 사업 시행계획 전반과 개선방안, 중앙정부 R&D사업과의 차별성,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세부적인 정보 가 제공된다.

최사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개발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며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선뜻 기술개발에 도전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경기도의 자금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수원시 위생관련단체, "어려움 겪고 있는 위생업소 지원해주신 수원시에 감사드린다"

수원시 위생 관련 단체 대표, 염태영 시장 면담하고 감사 인사



수원시 위생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염태영 수원시장을 면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 관련 업소들을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하나영 위생단체 연합회장, 박종렬 외식업협회 수원시 팔달구지부장, 조희래 제과협회 수원시지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집합금지·집합제한이 이어지면서 위생업소 영업 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마련해 '수원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해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생업소가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일 방안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했고 영업시간 제한이 다소 완화됐다"며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의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진 않겠지만 다 함께 보릿고개를 넘는다는 심정으로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방역 수칙을 잘 준수 해주신 영업주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7~8월에는 코로나19 피해 위생업소 56개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지난해 2월부터 지속해서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최진경기자

'시민의 소중한 추억이 시흥의 역사가 된다'

시흥오이도박물관 유물 기증 캠페인 추진

시흥오이도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흥시와 관련된 유물 기증 캠페인을 연중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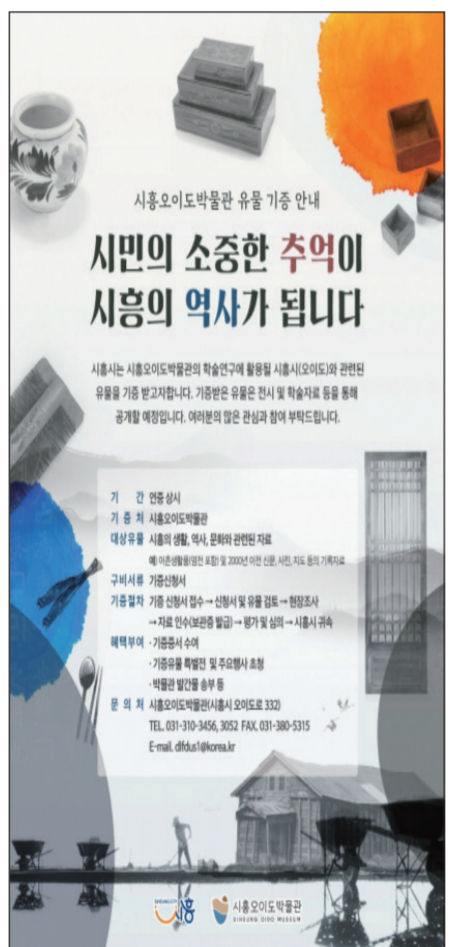
박물관 개관 이후 20만여명이 다녀간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자발적인 유물 기증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기증 대상은 어촌 및 군자·소래염전 관련 생활용품과 2,000년대 이전 사진·지도·신문 등의 기록 자료로 시흥의 생활·역사·문화와 관련된 유물이면 모두 가능하다.

기증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수집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유물의 전시·연구적 가치를 평가한 뒤 기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가 발급되고 박물관의 각종 전시 및 문화행사 초청을 비롯해 박물관 도록·학술도서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증받은 유물은 소장품 등록 후 전문학예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박물관 전시 및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성남시 동네슈퍼 13곳 '밤에는 무인' 스마트슈퍼로 전환

출입 인증 장치, 무인 계산대 설치 등 최대 800만원 지원

성남시는 올해 1억400만 원을 투입해 동네슈퍼 13곳을 대상으로 밤에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슈퍼 전환 사업'을 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공모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선정돼 시행하는 동네슈퍼 부흥책이다.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다.

시는 무인 운영에 필요한 출입 인증 장치, 무인 계산대, 담배 판매 분리 셔터, 주류 판매 잠금장치, 무인 운영 안내 환판, 가격표시장비, 보안장비 등 스마트기술·장비 도입비를 점포당 최대 800만원 지원한다.

경영 방식 개선에 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순님은 24시간 동네슈퍼를 이용할 수 있고 점주는 심야 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매출 5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점포 매장면적 165㎡ 미만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점포 등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한 동네슈퍼다.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희망하는 점포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오는 4월 16일까지 시청 8층 상관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서류와 현장 평가로 오는 5월 전환 지원 대상 동네슈퍼를 선정한다.

성남시 상관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의 비대면 쇼핑과 유통 업계의 인터넷 판매가 늘고 있다"며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해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성욱기자

과천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공미술 '아트큐브 과천'

과천시민과 작가가 81차례의 원탁회의를 거쳐 제작한 큐브작품 19개

과천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트큐브 과천' 전시회를 오는 28일 일요일부터 4월 4일 일요일까지 중앙공원 현충탑 근처에서 진행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트큐브 과천'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주최, 과천시와 aec비네파미 주관하는 행사로 9개의 서로 다른 공동체가 원탁회의를 통해 주제와 내용, 방법을 정하고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2미터 정육면체 큐브 속에 담아 전시하게 된다.

'아트큐브 과천'은 시민들을 창작자로 초청하고 작가를 매칭해 9개의 공동체를 구성했다.

구성된 공동체는 지난 2개월 동안 81차례의 원탁회의를 통해, 처음에는 각자의 관심사나 살아가는 이야기로 이후에는 공동 작품의 주제와 내용을 합의해 나가 큐브 작품 19개를 탄생시켰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당면 의제를 다루기도 하고 개인의 삶에 관한 담

론, 취향과 삶의 방식, 개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책무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두 달 동안 시민들이 육신각신하며 생각을 모아 만들어낸 '아트큐브 과천'은 현재 과천 시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며 기록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명희 씨는 "일상을 이렇게 미술로 표현할 수 있구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미술관을 가야만 한다는 통념을 깬 생활밀착형 공공미술 체험"이라고 소감을 밝혔고 박승교 학생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를 무섭지 않고 재미있게 알리고 싶어요"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역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하며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낸 것 자체가 의미있다"며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학부모 교육비 경감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및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경북교육청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경북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비 경감 주요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명당 연

간 약 123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학년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소요예산은 747억원으로 국가 318억원, 교육청 352억원, 지자체가 77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경북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실시한다.

이로써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968개교, 258,937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교별 적정 식품비 보장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체계를 통합단

기교육청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건비, 운영비를 성질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로써 인건비와 운영비 사용 규모에 따라 식품비 사용 비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를 지원한다.

수학여행비는 1인당 초등학생 14만원, 중학생 18만원, 고등학생 25만원 범위 내, 수련 활동은 초·중·고 9만원 범위 내 실비를 지원한다.

또한 도내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용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학생 1인당 3만원, 총 38억원을 지원한다. 공용 학습준비물은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도화지, 색연필, 가위, 풀 등을 말하며 위생상 개별 사용이 필요한 준비물이나 학생의 기호에 의해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준비물은 제외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성주군, 성주참외 라이브커머스 대박쳤다

11번가에서 세계적 명물 성주참외 라이브방송 실시

성주군은 3월 2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농산물 유통 강화를 위해 aT와 월항농협이 협업체 개 최한 '11번가 성주참외 온라인 라이브방송 판촉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성주참외를 최대 35% 할인해 판매했으며 방송 중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 동시 간대 12만6천명이 접속해 4,500만 원 판매 기록을 세웠다.

또한 성주참외 효능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베타카로틴 함유, 식외빵 등 참외를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이끌었다.

성주군수는 "이번 라이브방송을 통한 성주참외 온라인 판촉행사로 언택트시대에 맞춰 新유통시장을 개척하고 세계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성주참외를 기존 소비층과 젊은 소비층까지 다양한 소비층을 확보해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같다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라이브커머스, SNS 등 비대면 유통 시장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영천시 보건소, 걷기와 관광을 동시에

영천시 보건소는 지난 8일부터 5월까지 모바일 걷기 앱을 이용한 비대면 걷기 활동과 관내 관광지 투어를 연계한 '건강하GO, 관광하GO' 스탬프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34만보 걷기' 목표 달성과 함께 선정된 관광지 중 8곳 이상 방문하는 미션 수행 이벤트로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 목적지 접근 시 스탬프가 자동 발급되는 방식으로 진행, 스탬프 8개 획득 시 상품 교환 가능 쿠폰이 발급된다.

챌린지 투어 선정 관광지는 은해사 임고서원 보현산 천문과학관 치산 관광지 영천댐 보현산 댐 쉼터이며 운주산 삼자연휴양림 별별 미술마을 한의마을 최무선 과학관 둘 할때 공원이자

참여방법은 워크 온 앱 설치해 영천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 후 '건강하GO 관광하GO' 챌린지 참여하기로 신청한다.

참여자 걷기 동기부여를 위해 영천사랑상품권을 준비, 도전 종료 후 미션 달성 여부를 확인해 배부할 예정이다.

최수영 보건소장은 "생활 속 걷기 실천으로 목표 달성 통해 성취감도 얻고 지역 관광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따로 또 같이, 비대면 걷기 활동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시민들이 일상에 활력을 되찾고 꾸준한 걷기를 실천하는 건강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스타트업에 최대 1억 지원,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화 성공률 높인다

우수기술 창업기업 집중 발굴·지원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기대

대구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북대학교가 지난해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한 초기창업패키지 기관 평가를 통해 올해 정부지원금 40억원을 확보하고 2년 연속 사업을 추진한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및 특허프로그램을 지원해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북대학교는 지난해 44개사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20년 12월 기준 매출 144억원, 신규고용 150명, 투자유치 29억원의 성과를 이끌어 내면서 지역 거점 창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중기부 실적평가에서 우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두 기관은 올해도 시비 4억원을 포함 총 44억원을 투입해 초기창업기업 42개사에 기업당 평균 7,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비즈니스모델·기술성·시장성을 검증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후속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창업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

남궁영기자

포항시, 따뜻·세심 적극 행정 눈길

버스 정류장 11곳에 온열의자 설치, 38℃ 따뜻한 표면 유지, 온돌방 아랫목 쉼터

포항시가 시민 편의에 중점을 두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따뜻하고 세심한 적극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끈다. 포항시는 도심환승센터 등 버스정류장 이용이 많은 11곳에 온열의자를 설치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발맞춰 지난해 말 설치된 온열의자는 버스 운행 시간에 맞춰 가동되며 38℃의 따뜻한 표면 온도를 유지한다.

온도센서가 바깥 기온이 17℃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감지해 의자 표면의 열선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일교차가 큰 요즘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온돌방 아랫목'처럼 따뜻한 쉼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 의자는 안전강화유리로 덮여 있어, 여름철에는 표면이 실온보다 약 2℃ 정도 낮게 유지돼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시원한 '얼음의자' 까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온열의자가 설치된 '미세먼지 휴게쉼터 정류장' 8곳도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유리 내·외부가 차단된 정류장에서 먼지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공기순환기, 에어샤프,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이 가동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쉴 수 있다.

시는 주민의견을 담아 온열의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쉽게

볼 수 있는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최근 시범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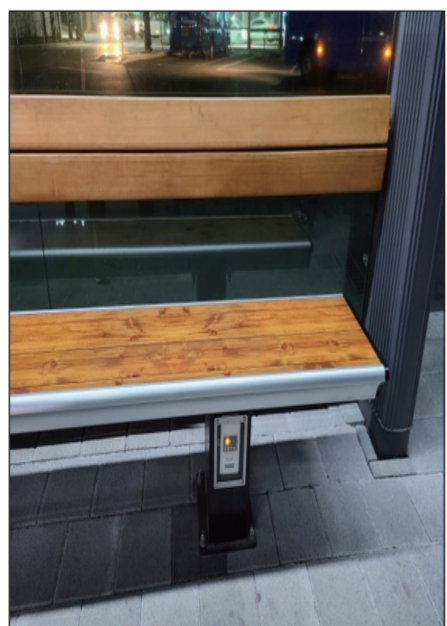
설치 장소는 우현사거리, 구포항역, 포항세관, 장랑휴먼시아 앞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4곳이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높이가 1.7m로 기존 4.8m에 이르는 일반 게시대보다 많이 낮기에 바람 영향을 적게 받고 특히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게시물 내용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용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봉화 딸기, 첨단시설로 '명품화' 10억원 투입

하이베드 재배시설 확대, 일손부족 문제해결·고품질 딸기 생산

봉화군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목의 발굴과 경영비 절감 시설 보급을 위해 올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5개 농가에 봉화 딸기 명품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로써 봉화군 기후조건을 활용한 딸기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으로 경북 최고 품질의 딸기 특화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동화 재배시설 또는 육묘장 설치 하이베드 재배시설 전환 경영비 절감 시설 설치 및 자재 구입 실탄, 알타링 등 모종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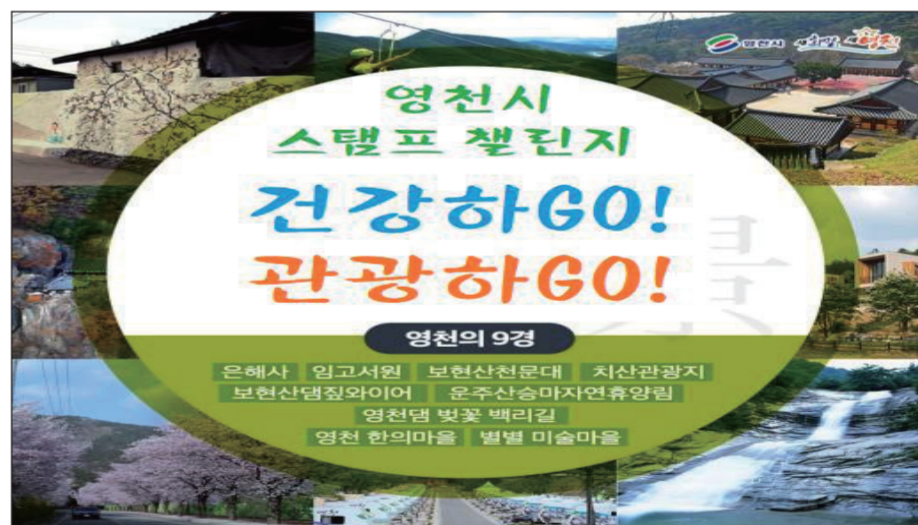
특히 하이베드 재배는 고설 재배라고도 불리며 지면보다 높은 곳에 인공 베드를 설치함으로써 과실의 공중착과 및 부패 걱정을 덜고 각종

병해충 방제에도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토양온도, 수분함수율, EC, 온습도제어, 양액공급, CO2의 수치를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확인하며 자동제어 할 수 있어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고품질 딸기 생산이 가능하다.

토경재배 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연작장애를 피하면서도 노동력 절감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또한 ICT융복합 환경제어장치 및 무인방제기 등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유 온풍기 대비 난방비를 60% 이상 절감시켜주는 신소재 인 절전형 탄소발열관을 설치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한다. 조준한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은 "딸기 생육적온은 낮 20℃, 야간 8℃ 정도로 12월~2월까지 난방비가 절감되면 타 지역 대비 딸기 생육적온이 유지되는 봄이 길어 고품질의 딸기 생산에 유리하다"며 "봉

화군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2040년 경남 수소경제 청사진 나왔다

24일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남남도는 24일 도청에서 경남남도 수소산업위원회 제1기 위원을 위촉하고 '경남남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수소산업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위원회 운영계획 안내, 위촉장 수여,중장기 계획 최종보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소 분야는 창원과 울산이 많이 앞서 있다"고 말하고 "경쟁구도로 가기보다는 울산과 창원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새로운 수소경제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산업위원회에서도 동남권이 수소경제권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수소산업위원회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경남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제1기 위원은 당면직 2명과 위촉 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당면직 위원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이 당면직 위원이며 이밖에 조례 대표 발의자인 한옥문 도의원, 그리고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관련 분야 기업체 관계자 등이 위촉됐다.

민간 위원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 역할도 겸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3월 시작했다.

전국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소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지난해 9월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이날 최종보고회 이후 내용을 다듬어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다음달 초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장기 계획은 먼저 2040년 수소사회가 보여줄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정에서는 수소연료전지로 만든 에너지로 샤워를 하고 음식을 조리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수소터빈발전으로 전환되고 굴삭기와 지게차도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삼아 현장을 누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과 에너지저장 등 생활과 산업분야 구석구석에서 화석에너지가 사라지고 수소에너지가 그 자리를 채운다.

중장기 계획은 이러한 수소미래상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경남의 산업특성을 분석한 내용을 반영해 '생활 속 수소 보급전략'과 '수소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한다.

생활 속 수소 보급전략에서는 2040년까지 수소차 23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08개소와 생산기지 18개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언론에 보도된 수소저장소 폭발사고와 '수소폭탄'이 주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아직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있기 때문이다.

수소차는 차량구해보조 및 세제지원을 통해 '30년까지 6만 6천 대, '40년까지 23만 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수소충전소는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기존 LPG충전소를 활용해 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가스공사, 코하이젠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속도를 붙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1,882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생산기지는 수소가 장기적으로 생활과 산업 모두에 있어 필수에너지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 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배관망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단계로 도내에 지역거점 수소생산기지 18개소를 만들고 기지와 충전소 간 공급망을 만든다.

2단계로 지역거점 수소생산기지 간 공급망을 연결하고 3단계로 타 시도 공급망과 연계해나간다.

수소산업 육성전략의 비전은 "수소경제 조기 실현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이다.

수소경제 제조산업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수소생태계 클러스터와 및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수소활용산업 활성화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경남은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기업들이 골고루 발전되어 있고 특히 소재와 부품, 기계 및 설비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지역 산업여건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먼저 수소생태계 클러스터화를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소전문기업 유치 및 육성, 연구인프라 집적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학연 집적은 물론 기관 간 연계성을 높여 실질적인 수소생태계 클러스터를 만들어나간다.

수소생태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는 수소경제 가치사슬 전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경남 지역에 풍부한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소재와 부품, 기계 및 설비의 신뢰성과 안전성 향상 수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수소경제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 하고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수소활용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소 생산·소비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충전소 발전 기술개발과 상용화 창원국가산단 내 들어설 미래모빌리티 연구센터 입주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수소모빌리티 육성 액티비티 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과제로 삼아 수소경제 고도화를 도모한다.

중장기 계획에는 동남권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수소경제권과 관련한 전략도 포함됐다.

분석에 따르면 경남은 수소 연구기관과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해 있고 다양한 활용산업 분야가 존재한다.

부산은 수소선박과 항만 활용산업에, 울산은 수소자동차 완제품과 부생수소 생산 및 공급 부분에서 각각 강점이 있다.

이러한 각 지역의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수소 교통망, 수소항만, 수소배관망 구축, 그리고 청정 남·동해안 조성을 위한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 선박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동남권수소경제권의 제1호 사업으로는 '동남권수소버스'가 제안됐다.

현재 경남과 부산, 울산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투입함으로써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동남권수소경제권 형성의 공감대를 확산해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3개 시·도 국장급 회의를 통해 동남권수소경제권 세부사업들을 협의한다.

아울러 수소시외버스가 양산되면 실증을 거쳐 진주~창원~부산~울산을 경유하는 광역 수소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테크노파크 측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2040년의 수소생활을 들여다보면 경남의 연간 수소 소비량은 56만 톤 정도로 주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사용량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맞게 수소경제를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합천 7가지 색깔 걷기 챌린지 참여하고 상품권 받자~



합천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 합천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비대면·비접촉 여행프로그램 합천 7가지 색깔 걷기 챌린지 행사를 추진한다.

본 행사는 오는 4월 3일부터 11일까지 합천군스마트관광전자지도를 활용해 걸어야 보이는 숨은 관광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다.

이번 걷기 행사는 3월 25일부터 온라인 사전접수를 시작한다.

평일은 온라인으로만 행사 진행, 주말 4일동안은 현장 접수 및 안내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10시~오후 4시이다.

합천군민 및 합천을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 사전접수 포털 사이트에 '합천 전자지도' 검색 웹사이트 로그인 스탬프투어 7가지 여행

길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걸으면되며 코스별 3개 지점 이상 통과하면 전자도 완주인증서가 발급된다.

걷기 코스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7가지 색깔의 여행길로 구성돼 있다.

1코스 해인사소리길 물, 바람, 새,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1코스는 대장경테마파크 주차장~소리길 탐방지원센터~농산정~김상암~휴게소 코스이다.

2코스 다라국황금이야기길 신비로운 다라국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2코스는 합천박물관 주차장~옥전고분입구~28호 고분~박물관 관광안내소 코스이다.

3코스 황감마실길 합천호의 하류인 황강을 따라 걷는 3코스는 일해공원 주차장~황강수중데크~함벽루~황강체육공원~강변로~체육공원로 코스이다.

최광용기자

사천공항 이용객, 하이에어 취항 6개월 만에 2만명 돌파

사천공항이 옛 영광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하이글로벌 그룹 소형항공사 하이에어의 사천~김포노선이 신규 취항 6개월 만에 탑승객 2만명을 돌파했다.

총 탑승객 중 사천~김포노선 이용객이 약 2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7% 증가한 87%의 탑승률을 기록한 것. 하지만, 12월 취항한 사천~제주노선은 2500명으로 탑승률이 12%에 불과해 김포노선에 비해 약간 아쉬운 실적을 보이고 있어 분발이 요구된다.

사천공항은 2001년 통영대전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용객이 점점 감소하던 중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전 노선이 전면 중단됐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적자를 이유로 지난 3월 1일부터 사천공항에서의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다.

이때부터 사천공항은 단 한 대의 여객기도 운항하지 않는 '무니만 공항'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지난 9월 사천~김포노선에 취항, 7개월만에 공항을 면모를 조금씩 갖추기 시작했다.

여기에 12월부터 사천~제주노선까지 항공기가 투입되면서 사천공항의 옛 영광 재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6개월이 넘는 동안 기상악화를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회항을 하지 않는 등 높은 운항률을 기록하면

서 소형항공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킨 부분도 성공적인 운항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도 하이에어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탄탄한 기반이 잡힐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수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심마을

영양
자연과 벗하던 서민의 영양나들이

길
산과 숲이 모여서
한번 오면...
영양국립자연보호공원
85501로 찾아가세요

빛
평일 저녁 7시...
영양국립자연보호공원
85501로 찾아가세요

맛
사면마을이여...
장계령이여...
영양국립자연보호공원
85501로 찾아가세요

심
자연과 벗하던 서민의 영양나들이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은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뵙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포도, 삼의계곡, 수계곡, 분신계곡, 침벽공원, 축복마을, 외씨버전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견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자연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전남도, 스마트팜 특화 실습 위주 장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으로 청년농부 키운다

전라남도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한 창농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은 스마트팜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0개월간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실습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실제 독립 경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전문 농업교육 과정이다.

시설환경관리 등 첨단 기술 이론 교육을 배우는 입문과정, 입문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직접 실습하는 교육형 실습, 보육생이 직접 생산·판매·경영하는 경영형 실습 등 단계별로 진행된다.

또한 보육 과정 수료생 중 성적 우수자 12명을 선발해 영농에 조기 정착하도록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 자격과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자격 등을 부여한다.

자금 지원은 최대 30억원까지,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기 교육생 52명을 선발, 선도농가 및 실습기관인

순천대에서 현장 실무 경험을 쌓는 교육형 실습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기 교육생은 5월 모집공고 후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전문가 면접을 통해 8월 최종 52명을 선발한다.

전남도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육 실습농장과 청년 농업인이 입주해 경영할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등을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고흥에 올해 준공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유통과장은 “체계화된 현장 중심 실습교육으로 전남 스마트농업을 이끌 전문가를 양성해 청년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강진군 청자골 장미, 2차 온라인 화훼 특별 기획전 개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우체국쇼핑에서 판매



전남 강진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업인을 돕기 위해 ‘강진 청자골 장미 2차 온라인 화훼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군은 지난 2월 24일에 실시한 온라인 화훼 기획전이 개시 반나절 만에 장미 35,000송이가 조기품절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장미 직거래 구입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2차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기획전은 우체국쇼핑에서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

행되며 장미 10송이를 택배비 포함 12,900원에 판매한다.

수량은 50,000송이 한정으로 요일별 지정주문을 통해 판매가 진행된다.

청자골 강진 장미는 단일규격으로 박스 포장 후 배송과정에서 흔들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꽃대와 박스 하단 부분을 케이블타이로 고정된 상태로 배송된다.

또, 장미의 관상기간을 늘려줄 질화수명 연장제와 장미손질 활용법 안내문도 함께 동봉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우철 강진군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온라인 판매를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청자골 장미의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원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화훼류 판매 홈페이지 구축 등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농특산물 비대면 유통과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장길기자

담양군,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 전남대학교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

담양군은 25일 전남대학교박물관과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정금희 전남대학교박물관장이 참석해 담양 역사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에는 담양군 출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과 담양군 역사박물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더불어 담양군의 역사와 문화를 일반에 널리 알리는 다양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현재 담양 역사박물관은 박물관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역의 역사 자료와 유물을 한곳에 모아 보존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은 매우 중요하다”며 “박물관 건립을 위



한 전남대학교박물관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금희 전남대학교박물관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담양의 역사문화 활성

화를 위한 박물관 건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기관의 상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완도 해양치유센터, 바다자원을 새롭게 활용한다

해수,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의 새로운 가치 발견

최근 국내에서는 해양치유자들이 가진 효능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시도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해수와 갯벌, 해조류, 맥반석, 지역 특산물인 황칠과 비파 등을 치유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성분을 분석 중이다.

더불어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해양치유센터가 3월 31일 착공함에 따라 다양한 해양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 제2주차장 부지에 건립하게 된다.

지하층에는 자원관리실, 1층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해수 풀과 5개의 테라피실, 2층에는 갯벌, 해조류 등을 활용하는 11개의 전문 테라피실이 설치된다.

해양치유센터에서는 일반 치유프로그램과 부위·목적별 치유를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일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1층에는 큰 규모의 해수풀과 에어 버블,

각종 샤워 설비가 배치되어 다양한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수 풀에서는 매일 정기 프로그램으로 아쿠아로빅, 아쿠아 노르딕 등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층에는 명상 풀도 있는데 수중 사운드·영상 시스템이 설치되고 염도가 높은 해수를 활용해 수중 재활운동으로 관절 치료를 돕는 와츠,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플로팅 요법 등이 이루어진다.

요법은 근육 이완, 척추질환 해소, 수중음향과 영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해수 성분으로 인해 림프 순환 및 피부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해조류의 영양 성분을 거품으로 전신에 도포할 수 있는 해조류 거품 테라피실, 완도에서 채취한 천연 갯벌을 활용하는 갯벌 테라피실, 피부 개선과 호흡기 질환 해소에 도움이 되는 해수 미스트실이 들어서게 된다.

전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2층에는 진단실이 들어서는데, 피부 상태 측정 및 전신 체형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프로그램 전후 비교 및 이력 관리 등이 이뤄진다.

전문 프로그램은 전문 테라피스트들과 함께 하는 해수, 해조류, 갯벌 등을 활용해 몸을 사용하는 습식 테라피실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테라피실로 구성된다.

군은 치유요법과 자원관리를 위해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 운영과 더불어 숙박시설과 연계한 프로모션 및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 상생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치유센터에서 사용되는 자원을 바이오 연구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한 해양치유 자원 상용화 및 제품화를 통해 수익 창출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요법이 한 곳에 집중된 대한민국 최초의 센터가 될 것이다”고 자부하며 “치유 자원을 완도산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영윤기자

광양읍 서천 벚꽃길, 낮과 밤이 빛나는 화려한 변신



광양읍 서천변에 만개한 벚꽃들 사이로 화려한 야간조명이 더해져 시민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벚꽃이 만개하면서 서천변에는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야간에 화려한 벚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시는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벚꽃나무 사이로 야간조명을 설치해 낮과 밤 모두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색을 연출하는 간접조명과 반딧불을 연상시키는 레이저 조명은 화려한 벚꽃의 아름다움을 더해지며 은은한 불빛으로 바닥을 비추주는 볼라드 조명은 밤에도 벚꽃길을 걷는 재미를 주고 있다.

또한, 맞은편에 설치된 꽃 터널

에는 터널을 이어주는 간접조명, 다양한 문구를 바닥에 비추주는 고보 조명, 바닥에 그려진 트릭아트 등 서천변을 찾는 시민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권희상 도시재생과장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벚꽃을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해 가족, 친구, 연인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광주 서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양동마당’ 추진

광주 서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국비 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호남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는 서구는 유통산업의 급격한변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특화 창업육성 플랫폼

‘양동마당’을 추진했다.

지난 해에만 창업자 4명 중 3명이, 네오양주, 슈가픽) 양동시장에 점포를 개소하는 등 참여자 8명 전원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A등급’의 평가를 받아 올해 사업에도 연속으로 선정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서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하는 디지털·비대면 창업모델을 중점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말바우시장 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참여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이며 선정자에게는 창업화 자금 1천5백만원과 함께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개별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청년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남원시 2년 연속 희망2021 나눔캠페인 우수시군 선정

남원시는 지난 20년 12월 1일에서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 된 '희망 2021 나눔캠페인'과 관련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우수시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과 같은 악재 속에서도 활발한 모금활동을 전개해 14개 시군 중 우수시군에 선정된 것이다.

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결과로 남원시민이 지역사회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룬 쾌거이다.

이번 시상으로 남원시는 감사패와 함께 지원금 약 1억 3천만원을 받았다. 지원금에는 긴급지원 및 현안 사업비가 포함되었으며 남원시는 이를 활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남원시장은 이날 "우리 남원시민의 소중한 마음에 감동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남원시가 복지와 나눔으로 희망찬 미래를 써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남출/기자



임실군, 정신건강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지원체계 구축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 택시운송조합과 MOU 체결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내 택시운송조합과 업무 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이 협약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약을 통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 관리 및 정보 공유 등 정신질환 응급 위기 상황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택시 기사를 생명지킴이로 양성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데 책임자로서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

험군 발견 및 의뢰, 교육 및 홍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의 뜻을 모았다.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존중 인식 향상과 자살 위기자의 조기 발견 및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형식 보건의료원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위험자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진안군, 미래 고부가가치 양봉산업 집중육성



진안군이 양봉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5억 2천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전북도와 협력해 양봉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각종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봉산업은 화분 매개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봉산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타 축산업보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 투입 등의 이점이 있어 최근 양봉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농산물 생산 기여 및 산림 생태계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지니고 있어 전문가들의 분석결과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6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한다.

군은 높은 호응도를 보였던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사업, 벌꿀 자동채밀기,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벌꿀 보관통, 벌꿀 품질검사비 등을 꾸준히 지원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벌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남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아카시, 백합, 헛개 등 밀원수 692ha를 조성해 양봉농가의 소득 기반을 마련했다.

전준성 진안군수는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들을 통한 고품질의 꿀·양봉산물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철/기자

나주시, 만 75세이상 주민 대상 백신접종 사전준비 착수

4월 중순부터 '하이자' 접종 ...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접종센터 지정

전라남도 나주시가 만 7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하이자'로 4월 중순 경 1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종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만3278명으로 집계됐다. 도보나 차량 탑승이 어렵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주민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종센터 방문이 아닌 타 방식의 접종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읍·면·동 담당 직원들과 이·동장과의 연계를 통해 접종 동의를 사전 수령한 후 정부의 백신 수량 배정 계획에 따라 일정별 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접종센터는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됐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 이동 차량을 지원한다.

또 접종 후 백신 이상반응 유무 확

인을 위한 유선 연락, 방문 등 상시 모니터링과 응급의료기관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요양병원·시설 28개소, 고위험군 의료기관 3개소 입소자, 종사자 등 2692명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차 접종을 100% 완료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백신 접종은 이달 23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 총 30개소 2428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24일 기준 2차 백신 접종률은 19.3%로 집계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백신 접종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수요조사, 이동 교통수단 지원, 사후 관리 등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국민연금공단 옆에 쉼터형 택시 승강장

시, 다음 달까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청사 동측에 택시 승강장 구축

전주시가 국민연금공단 제2청사 신축과 맞맞춰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택시승강장을 조성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총사업비 8500만원을 투입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청사 동측에 택시 승강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방문객들이 많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국민연금공단 동측 기지로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의 경우 지붕이 없고 편의시설이 없는 데다 거리가 멀어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택시 승강장을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로 만들기 위해 지붕이 있는 승강장으로 만들면서 밀폐형과 개방형 두 개의 부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내부에는 탄소발열의자와 에어컨, 에어커튼 등 편의시설도 갖추기로 했다.

향후에도 시는 기존 전주시 택시 승강장 20곳을 조사·점검해 낙후된

승강장은 정비하고 편의시설도 갖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의 택시 승강장은 택시 이용객과 택시 운전자 모두에게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닌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시민을 태운 택시 운전자가 모두 편안히 쉴 수 있는 택시 승강장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031.984.8245

옥천군, '옥자10시리즈' 날개 달다.

보물 승격 '이지당', 문화유산 거리 '구읍 골목길' 등 추가

충북 옥천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창안된 선전 문구 '옥자10시리즈'가 날개를 달았다.

옥천군은 지난해 2월 처음 선보인 이 문구를 재정비하고 이번 봄철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옥자10은 옥천 가서 놀자, 먹자, 보자, 걸자, 사자, 쓰자, 자자, 심자, 찌자, 살자 등 10가지 주제의 앞 글자와 뒤 글자를 압축해 표현한 어휘의 집합체다.

10가지 주제와 그에 관련지는 소재를 연계해 시리즈로 만들었다.

옥자10의 처음은 46개 소재로 구성됐다.

지금은 14개가 추가돼 총 60개로 늘었다.

군은 '놀자'에 잠옷축제, 생선국수축제, 농촌체험마을 등을 추가했고 '먹자'에 정지용밥상과 물쫄면 등을 더 넣었다.

지난해 말 보물로 승격된 옥천 이지당은 '보자', 문화유산 가득한 거리 구읍 골목길은 '걸자', 찻잎과 찻솨는 '사자'에 얼굴을 내밀었다.

화산산립육장의 경우 기존 '보자'에서 '걸자'로 변경했다.

'찌자'는 용암사 일출, 부소담약, 둔주봉 한반도 지형 등이 그대로다.

'살자'에는 내 마음이 추가돼 눈길을 끈다.

옥천은 향수의 고장으로 내 마음 속에 항상 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이 옥자10에 날개를 달아 준 데는 최응기 부군수의 공이 컸다.

올해 부임 초부터 옥자10시리즈에 관심을 기울인 최 부군수는 관련 실·과장과 함께 수차례 재구성 방안을 논의해 확장된 옥자10을 만들고 홍보 방안도 마련했다.

군은 새롭게 창안된 옥자10시리즈



를 시책사업으로 정하고 매년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모든 부서가 홍보물, 기념품 제작 등에 옥자10을 활용한다.

최응기 부군수는 "흥미와 재미를

끄는 옥자10시리즈 덕분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전 직원이 참여와 공유, 협력을 통해 날개 단 옥자가 멀리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조길형 시장,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시민불편 해소" 강조

이슈와 변화, 신속하게 파악하고 꼼꼼히 챙겨야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역 현안의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한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25일 주재한 정책토론회 영상회의에서 "지역사회의 이슈와 변화를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신속히 해소하는 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직접 발로 뛰며 눈으로 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 부동산 투기세력, 사행성 도박장 등 지역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와 관련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문제점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최근 음성 LNG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송전선로 설치에 예상되는 마을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개적·공식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 지역의 입장을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산업단지의 추진과정에서 보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생겨 반려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기반이 탄탄한 산업단지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충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려서 시민들께서 동요 없이 일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75세 이상 노인분들의 화이자 백신접종을 위한 동서 작성에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

고 있어 감사함을 느낀다"며 "원활한 백신접종으로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 대응 상황에 휩쓸려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며 "시민의 행복을 향해 더 가까운 전진하는 자세로 긍정적인 미래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홍천군,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공모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최종 확정...국비 100억원 3년간 지원

홍천군이 K-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홍천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확정됐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형성 바이러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100억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됐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용 항체개발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매입한 구 강원원력개발원을 K-바이오 혁신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첫 도약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과 과기부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건립을 함께 진행, 항체은행 클러스터를 조성한 후 바이오 선도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해 K-바이오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파크 조성 공모사업을 올해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공모 확정을 시작으로 홍천군을 K-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야생화마을 고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정선군은 25일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 야생화 마을 고한"을 슬로건으로 한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유형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7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된다.

주요 사업은 지역역량과 주민역량을 활용한 지역특화 및 상권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생활 편의와 복지지원 확충,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체 형성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고한읍 현장지원센터는 뉴딜사업으로 마련되는 야생화 어울림센터 신축건물 내 입주 예정이나, 공사 준공 시까지 고한시장 상인회관 4층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주민협의체 지원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임명된 강원대 박훈 교수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이론은 물론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이며 지역주민과 행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고한읍만의 지역 특성을 잘 살린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이끌어낼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역 안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고 연결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4년 후에는 인구도 증가하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2021 조치원봄꽃축제' 누리집으로 먼저 만나요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온라인 이벤트는 상시 진행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이 지난 22일 조치원봄꽃축제 누리집을 정식 오픈하고 '2021 조치원봄꽃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우리동네 여기저기 꽃피었네'를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로는 조치원 내 도시재생공간을 포함한 12개의 다양한 공간에서 총

2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꽃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어보는 '봄꽃공방' 꽃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봄꽃화방' 어쿠스틱밴드·마술·버블쇼 등 다양한 장르의 '봄꽃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

또, 사연에 따라 1인을 위한 독립 영화를 직접 큐레이팅해주는 '봄꽃 영화제'도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25일부터 사전신청을 시작하며 프로그램 당 최

대 참여인원을 10인으로 제한한다.

모든 행사 공간은 프로그램 진행 전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히 방역한다.

참석자는 발열체크, 손 소독 및 방문자명부를 작성 후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온라인 이벤트는 누리집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참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는 조치원의 지역문예지 '백수문학'과 연계해 펼쳐지는 '봄꽃필사챌린지'로 문인들의 작품 중 봄꽃과 관련된 시 10선을 매일 따라 써보는 프로그램이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세종소상공인협동조합에서 만든 조치원 수제 복숭아청이 선물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온라인에서는 매일 5명을 추첨해 꽃다발을 선물하는 '봄꽃 선물' 이벤트, 4월 생일자에게 전달하는 봄꽃케이크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전개된다.

조치원봄꽃축제의 세부 프로그램 안내와 참여를 위한 신청·접수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 "올해 봄꽃 관련 축제의 첫 문을 여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온라인으로도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금택 조치원봄꽃축제 추진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조심스럽게 준비한 축제인 만큼 조치원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세종시민들께서 서로를 위로하고 감동받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원주시, 봄맞이 도시공원·녹지 새단장

도시공원 107개소, 녹지 114개소 등 총면적 270만 제곱미터

원주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쾌적하고 깨끗한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 및 환경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시공원 107개소와 녹지 114개소 등 총면적 270만 제곱미터다.

용역업체 16곳을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66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8

명 등을 권역별로 편성해 추진하고 연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겨울철 관리가 어려웠던 공원녹지 청소 및 부산물 처리와 함께 관목 전정, 시비, 제초, 예초,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도시공원에 식재된 식물의 특성에 따라 계절별로 시민에게 만개한 꽃과 녹음 등을 제공하고 거리별로 단풍길, 벚꽃길, 이팝나무길, 대왕참나무길, 힐링길 등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 누구나 즐겨 찾는 명품 가로숲길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해 단계·이화근린공원과 행구수변공원을 확충한 데 이어 입춘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했으며 올해는 중앙공원과 일산·마장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거주 지역 인근 도시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주민은 물론 평일에도 운동, 휴식, 산책 등을 위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농업회사법인 바름, 광주시에 성금 1천만원 기부

농업회사법인 바름 김동명 대표는 지난 23일 광주시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농업회사법인 바름은 지난 2019년 도척면 유정리에 설립된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로 광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으로 납품해 2020년에는 113억원의 연매출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사업장 확장을 위해 오프온 매장으로 이전·

확장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기부문화에 참여하고 싶다”고 기탁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현 시장은 “이웃사랑에 대한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민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최근수기자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제20대 이성자 신임 회장 취임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24일 오후 경상남도 통일관에서 제19대 하식 회장의 이임식과 이성자 제20대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도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시군 회장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됐다.

이성자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여성의 권익신장 활동은 물론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 경남여협도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순 경남여협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지역사회 여성 권익과 발전을 위해 앞장 서 온 도 여성단체협의회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출생과 고령화, 여성대표성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 해결에도 여성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격려했다.

최광용기자



여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제25대 제26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경기여성단체협의회 여주시지회는 지난 23일 여성회관에서 제25대 유명숙 회장과 제26대 정미정 회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간 가운데 전원 발열 체크 및 방문기록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이항진 여주시장,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주 여성단체협의회원 등 50여명이 가운데 진행됐다.

유명숙 이임회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면서 이웃을 돌보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했으며 앞으로 여주시 여성단체가 보람 있는 활동들을 통해 봉사단체 이미지를 넘어 시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미정 취임 회장은 “여대 회장

님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축으로 활동하며 가꿔오신 텃밭을 받았으니, 11개 단체 회장님들과 힘을 합쳐 여주 여성단체협의회를 더 잘 가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여주시의 미래는 여러분이며 앞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다음을 존중하고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여주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갈 제26대 임원진은 정미정회장을 비롯해 홍숙자, 조순희 부회장, 이미우, 권영순 감사, 유춘희 총무, 우두임 재무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성용기자



상주시 이효정 주무관,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국무총리표창' 영예

정부재난지원금 신청서 자동입·출력 프로그램 개발로 적극행정 실천

상주시 합참읍의 이효정 주무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국무총리표창'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13명 중 한 명으로 선발됐다.

더욱이 이번 유공포상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진행된 후보자 추천, 심사, 검증 등의 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해 더욱 뜻깊은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효정 주무관은 지난해 5월 정부재난지원금 신청서 자동입·출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속한 접수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맞집'으로 소개됐으며 국무조정실의 슬기로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도 선발되기도 했다.

또 경상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주시도 그 공로를 인정해 2020 읍면동 최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시상했다.

상주시는 오는 4월 16일 민선7기 제8대 출범 1주년 행사에서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한 해 적극행정의 표본이 되어준 이효정 주무관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 직원 모두가 적극행정을 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신임 상임부회장에 민철환 부회장 임명



안산시장애인체육회는 24일 민철환 (취태경건설 이사)을 상임부회장으로 송일영 군자장례식장 및 대륙자동차 대표를 이사로 각각 임명했다.

민철환 신임 상임부회장은 2015년부터 안산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남다른 열정으로 임원진들과 매월 '사랑의 나눔 릴레이'를 통해 생활이 어렵거나 체육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고 있다.

송일영 신임 이사는 이번 임명을 계기로 안산시체육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민철환 상임부회장은 “장애인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장애인체육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도 매월 장애인 시설과 단체를 후원하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민철환 상임부회장님의 활약이 더 욱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최정부기자

김경우 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이 3월 24일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주최한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질의,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알리기 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문제 등을 통해 시설 규정 준수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고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찾동 방문인력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민 의료 서비스 이용 개선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시립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 의료진 보호를 위한 안전 시설 설치 및 배치 부족 현황을 제기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우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

정활동을 시작한 첫 해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 개발과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광수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나빌레라’ 박인환-‘윤스테이’ 윤여정, 지금은 시니어 배우 전성시대! 연기X예능 중횡무진 대활약!



시니어 배우들이 눈부신 활약으로 '전성기에 나이는 필요 없다'는 말을 톰소 증명하고 있다.

그 선두주자는 윤여정. 올해 데뷔 55주년을 맞은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로 시니어 배우가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의 한계를 벗어던진 소화력으로 피닉스 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 등 30관왕을 차지한데 이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지명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tvN '윤스테이'에서는 센스 넘치는 활약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다. 손님들을 접대하는 온화한 미소는 물론 그들의 농담까지 맞받아칠 줄 아는 유쾌한 입담으로 외국인 손님들과 시청자들까지 출구 없는 윤여정의 매력에 퐁당 빠지게 만들었다.

윤여정에 이어 박인환은 일흔 황혼의 도전으로 '나빌레라'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tvN 월화드라마 '나빌레라'(연출 한동화/극본 이은미/제작 스튜디오오드레곤, 디그레이트쇼)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의 성장을 그린 사제듀오 청춘기록 드라마.

박인환은 극중 삶의 끝자락, 가슴 깊이 담아뒀던 발레의 꿈을 꺼내 든 은퇴한 우편 배달원 '심덕출'로 분해 나이 일흔에 찾아 나선 꿈을 향한 도전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실제 6개월간 발레 레슨을 받았다는 박인환은 "발레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느냐' 생각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연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 대배우의 연기 열정을 더

러낸 바 있다. 특히 '나빌레라'에서 박인환은 송강(채록 역)의 발레 연습을 보고 벽차오르는 표정에서 발레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는 감개무량한 표정까지, 발레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인 일흔 할아버지를 56년 연기 내공으로 그려냈다. 특히 "저는 한 번도 해보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야 겨우 하고 싶은 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좋으니깐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어요"라는 진솔한 속마음과 주름 가득한 얼굴에서 긴 세월을 차곡차곡 쌓은 간절한 마음이 내비쳐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울컥하게 만들었다.

시청자들도 '나빌레라' 1~2회 방송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박인환의 열연에 뜨겁게 호응했다. "덕떠너다", "쁘띠덕출"이라는 애칭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 "박인환 선생님 연기 입 벌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1시간 내내 울고 웃고", "박인환 배우 얼굴만 봐도 별 장면 아닌데도 눈물 났다", "박인환 배우 장면마다 완전 비상. 무덤덤하게 말하는 대사들이 더 가슴에 와 닿았다", "박인환 선생님 연기신이라고 드라마도 첫 회부터 명드입니다", "눈빛 하나, 손동작 하나하나가 연기력 뽐뽐에 캐릭터가 살아 숨 쉬더라" 등 댓글이 이어졌다.

tvN '나빌레라'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이 덕출을 향해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박인환이 송강의 발레 제자 겸 매니저로서 필질 고군분투와 백조처럼 한껏 날아오르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tvN 월화드라마 '나빌레라'는 매주 월화 밤 9시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안녕? 나야' 김영광, '최강희이레' 같은 사람 빅시크릿 알았다

'안녕? 나야' 김영광이 마음을 주고 있는 최강희의 빅 시크릿을 알아 버렸다.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최강희와 이레가 20년의 간격을 둔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영광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소원성취하는 '현실 소취 남편' 등극으로 여심을 쥐락펴락했다.

김영광은 지난 24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안녕? 나야' 11회에서 조아제과의 한지만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자, 37살 반하나의 키다리 아저씨로 활약했다.

유현은 점점 커져가는 하이에 대한 마음을 때때로 숨기지 않으며 설레게 했다.

그리고 사내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더욱 더 가까워졌다.

하나의 가장 큰 우군이자 그녀를 항상 지지해 주는 유현. 이날은 두 사람의 핑크빛 무드가 더욱 짙어진 가운데 하나와 그의 딸로 오인했던 17살 하나가 같은 사람이라는 빅 시크릿을 알고도 그녀의 편에 섰다.

당혹감 하나 없는 하나의 든든한 방패막이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유현이 보여준 모습은 보통의 재벌 2세 캐릭터의 공식을 깬 과거적이고 인간적인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벽이 없이 세상을 그대로 보는 유현은 무심한 듯 알뜰살뜰한 관심과 애착, 그리고 해맑은 장구 매력까지 폭발하며 극 곳곳에서 심쿵을 유발했다.

범접할 수 없는 올바른 키차이는 물론이고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지

켜줄 것 같은 태평양 어깨는 캐릭터의 매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런가하면 유현이 하나와 함께 사내 공모전에 냈던 과자가 당선된 기쁨을 만끽하던 중 두 사람 앞에 회사 감시팀이 나타나면서 엔딩을 맞아, 이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긴장감이 최고조를 이뤘다.

김영광은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유현의 톨러코스터 같은 감정선을 섬세한 표현과 눈빛 연기로 그려냈다.

17세 하나가 과거에서 온 것을 알았을 때는 혼란한 심리 상태를 흔들리는 동공 연기와 떨리는 말투로 표현했다.

반면 하나가 위협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성적인 모습과 순간에 변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완벽하게 묘사해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하나와 함께 17세 하나를 함께 챙기는 스윗함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또한 하나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등극, 하니 마음에 점차 스며들어 보는 이들과 지 설레게 만들며 핑크빛 연애에 기대를 더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자칫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유현 캐릭터를 김영광의 매력을 꼭 채우고 있다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

피지컬은 물론이고 특유의 미워할 수 없는 밀당 대사 처리, 또 반전을 이루는 행동들을 임체적으로 소화하고 있어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감시팀에 소환된 유현의 행보가 앞으로 스토리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안녕? 나야' 12회는 밤 KBS 2TV 밤9시 30분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첫방 '오! 주인님' 이민기♥나나, 티격태격 반전 로맨스 탄생

'오! 주인님' 첫 방송부터 이민기, 나나 그림체 커플의 티격태격 케미가 터졌다.

3월 24일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극본 조진국/연출 오다영/제작 넘버스리픽처스)이 첫 방송했다. '오! 주인님'은 인생작 제3기 조진국 작가의 차기작이자 로맨스 장인 이민기(한비수 역), 차세대 로코퀸 나나(오주인 역)의 색다른 동거 로맨스를 예고하며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베일 벗은 '오! 주인님'은 이 같은 시청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 사랑스러웠다.

'오! 주인님' 첫 회에서는 한비수와 오주인의 꼬여버린 인연이 퐁퐁 튀게 그려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 작가 한비수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까칠남. 한비수는 심혈을 기울여 다음 드라마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여자 주인공을 맡을 마땅한 배우가 없었고 드라마는 본격적인 촬영 전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이때 대한민국 최고의 로코퀸 배우 오주인이 구원투수처럼 나타났다.

이미 과거에도 두 번이나 오주인의 드라마 출연을 거절했던 한비수는, 이번에도 오주인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그리고 다른 배우를 여자 주인공으로 세웠다. 하지만 상황은 또다시 꼬여버렸고, 이번엔야말로 오주인이 아니면 한비수의 드라마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자존심 강한 한비수는 오주인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상황을, 몸부림치며 애써 부정했다.

한편 대한민국 남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로코퀸 오주인의 실제 모습은 화면 속 화려함과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요양원에 있는 엄마를 홀로 지키며 소녀가장처럼 깨끗하게 살아내고 있었다. 그런 오주인에게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과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추억의 한옥을 되찾는 것. 결국 오주인은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한옥집을 계약하며 다시 엄마와 함께 할 날을 기대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 하필이면 오주인이 계약한 한옥의 주인이

한비수의 엄마 강해진(이휘향 분)이었다. 그리고 현재 한비수가 그 한옥을 작업실로 쓰며 거주하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싶은 강해진이 한비수에게 비밀로 하고 집을 오주인에게 팔아버린 것. 이 사실을 모르는 한비수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본의 아니게 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한비수와 오주인. 한비수는 욕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를 시작했다. 오주인도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러다 어느순간 두 사람 모두 이곳에 본인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오주인은 샤워 중인 한비수를 목격했다. 당황한 한비수와 오주인의 모습이 교차되며 '오! 주인님' 첫회는 마무리됐다.

'오! 주인님' 첫 방송에서 가장 빛난 것은 연애를 '안' 하는 남자와 연애를 '못' 하는 여자의 으름장 케미스트리였다. 이민기는 한비수를 까칠하지만 밉지 않게, 나나는 오주인을 퐁퐁 튀고 사랑스럽게 그려내며 캐릭터에 입체감을 불어넣었다. 티격태격할 때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 본격적인 로맨스를 시작하면 얼마나 더 잘 어울릴까. 자극적인 요소 하나 없이, 시청자들의 가슴에 사랑스럽게 스며드는 로맨스 '오! 주인님'의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하고 기대된다.

한편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 2회는 오늘(25일) MBC 스포츠 추가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VS 일본' 중계방송으로 수요일보다 40분 늦은 밤 10시 방송 예정이다. '오! 주인님'은 IQIYI International에서 방송과 동시에 전세계 서비스를 하며, 각 회 별로 방송 직후 볼 수 있다. 해외 유저는 IQ.com을 접속하거나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IQIYI International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최재은기자



(재)부산문화회관 2021년 1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위기가 되기 위하여 다양한 인문교양 강좌와 실기강좌를 운영하였던 (재)부산문화회관의 문화예술아카데미가 다채롭고 유익한 강좌로 2021년 1분기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감염병 상황 속에서 도 수강생들이 안전하게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아래 시행되는 이번 강좌는 부산문화회관 만의 수준 높은 인문·교양 강좌와 실기강좌들로 구성된다.

매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문·교양 강좌들은 더욱 다양한 장르로 확대되어 개설된다. 매 분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유혁준의 '음악 이야기'와 이용숙의 '오페라하우스 인문학'이 다시 깊이 있는 수업으로 수강생을 맞이하고, '그림 속 오페라'로 인기를 모았던 전원경 작가는 '예술, 역사를 만나다'로 다시 수강생을 맞이한다.

지난 연말 '모네(빛과 색으로 완성한 회화의 혁명)'를 펴낸 허나영 박

사는 비즈니스를 주제로 화가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고, 미술평론가 장원 박사는 고대 원시미술부터 18세기 로코코 미술까지 연구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그 밖에 북아티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효은 작가의 특특튀는 미술실기 '일러스트 드로잉:개인의 취향', 'Creative 북바인딩:수집가의 컬렉터 북'과 미술을 통해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김은주 작가의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강좌 등 흥미로운 강좌들이 시민들의 인문학적 호기심을 충족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설가 함정임 교수의 '플로베르와 모파상의 소설과 사랑', 김성민 유럽문화해설가의 '유럽의 미술관'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는 시민들의 갈증을 인문학 수업으로 해소해주게 되며, 그 외 재즈, 대중음악, 한국 무용, 뮤지컬, 지역학 등의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인문·교양 단기 강좌가 개설되어 시민들의 여가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부산문화회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수준 높은 실기 강좌들도 계속된다. 다른 강좌들에서는 접하기 힘든 가야금, 거문고, 첼로, 현대무용 등은 매분기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강좌로 이번 분기에도 서두르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라인댄스, 한국무용, 발레, 해금, 바이올린, 클래식기타, 첼로 등도 시립예술단원과 지역의 우수한 강사들의 수준 높은 지도로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2021년도에는 온라인 아카데미도 운영된다. 상반기 중 다양한 인문·교양 강좌가 개설될 예정으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예정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은 오는 3월 15일부터 (재)부산문화회관의 홈페이지 및 전화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남궁영기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26일 견본주택 오픈

대구 신항주거지 중구 태평로 일대에 조성되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392세대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조성

- 아파트 320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72실 규모... 전 세대 전용면적 84㎡ 구성

▲ 대구 신항주거지 중구 '태평로'에 조성... 풍부한 생활환경 자랑

- 대구3호선 달성공원역 역세권 단지... 도보권 내 수창초교 위치해 교육여건 우수

- 달성공원 등 대형공원, 롯데백화점 및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전문시장 등 인접

▲ 태평로 일대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 프리미엄 효과 기대

- 태평로 일대 8,000여 세대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 조성 중

▲ 수납공간, 공간활용성 극대화... 다양한 평면설계로 선택 폭도 넓혀

- 남향배치 판상형 4Bay 구조(일부 제외), 알파돔 및 팬트리 적용

- 침실 2,3 통합형, 대형 드레스룸, 주방+홈오피스 등 다양한 평면 구조 선보여

▲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주거특화 서비스 제공

- 현대건설 홈 IoT 시스템 '하이오티(Hi-oT)', 자동주차위치 인식기능 등 도입

▲ 사전예약제&사이버견본주택 함께 운영... 아파트 오피스텔 동시청약 가능

-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사전예약제로 견본주택 운영... 사이버견본주택도 동시 오픈

- 4월 7일 아파트 1순위 청약접수 실시, 오피스텔은 4월 5일 홈페이지로 청약 접수 진행

현대건설은 3월 26일(금)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 165-2번지 외 25필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총 392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2개 동, 320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72실이 함께 구성되며,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단지는 전 세대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세대 수는 아파트는 ▲84㎡A 91세대 ▲84㎡B 44세대 ▲84㎡C 44세대 ▲84㎡D 47세대 ▲84㎡E 47세대 ▲84㎡F 47세대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84㎡OA 72실이다.

▲ 대구 신항주거지 태평로에 조성... 각종 생활인프라 모두 가깝게 이용 가능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대구의 신항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태평로 일대에서도 핵심입지에 조성돼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특히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대구3호선 달성공원역이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며, 대구3호선 북구청역, 대구1호선·경부선 대구역도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대구역에는 구미~칠곡~대구~경산간 61.85km를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교육여건도 좋다. 도보권에는 수창초교가 자리하고 있고, 주변에는 종로초, 서부초, 달성초, 경일중, 칠성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돼 있

다. 이 밖에도 단지 인근에는 달성공원 등의 녹지공간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오페라하우스,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북구청, 중구보건소,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태평로 일대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 프리미엄 수혜 예상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이 조성되는 태평로 일대는 현재 8,000여 세대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이 형성되고 있어 단지는 이에 따른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실제 주변에는 주변에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등 5,600여 세대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을 비롯해 향후에는 추가 공급도 예정돼 있다. 때문에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이 완성될 전망이다.

■ 수납공간 및 공간활용성 확대... 소비자 생활패턴에 따라 평면 구조 선택도 가능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돼 주거패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는 우선 남향배치와 판상형 4Bay 구조(일부세대 제외)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다. 또 세대 내부 설계로는 2.4m의 높은 천장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L'자형 주방구조(일부 타입 제외) 등을 통해 주방의 동선도 배려했다. 여기에

주변 대비 넓은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을 도입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주거형 오피스텔 역시 차별화된 설계로 주거패적성을 높였다. 전 호실을 정남향으로 배치해 조망권과 일조권을 극대화했으며, 높은 전용률과 4Bay 판상형 평면설계, 'L'자 주방 등을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타사 대비 넓은 드레스룸과 세탁실을 구성해 수납공간을 넓힌 것도 눈에 띈다.

특히 단지는 다양한 평면설계로 소비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평면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눈에 띈다. 침실 2, 3은 서로가 구분된 '기분형' 또는 둘을 합친 '통합형(무상옵션)'으로 선택하거나, '침실2+멀티라운지(무상옵션)' 형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드레스룸은 '기분형(무상옵션)'과 '대형 드레스룸(무상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주방 역시 '기분형' 외에도 '소형주방+홈오피스(무상옵션)'로 구성되는 형태 등을 선보여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 주거생활 편리함 높일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 적용, 미세먼지 저감 설계도 도입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주거생활의 편리함을 높일 최첨단 설계도 적용한다. 먼저 현대건설 홈 IoT 시스템 '하이오티(Hi-oT)' 기술로 편의성을 높였다.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스마트 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자동주차위치 인식기능'을 도입해 자동으로 주차 위치를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게 했

으며, 스마트폰 휴대만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 자동호출이 가능한 공동현관 '스마트폰키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안 및 안전 시스템과 에너지 절감시스템도 다양하게 도입된다. 보안 및 안전 시스템으로는 외부침입에 대한 보안기능을 강화한 '현관안심카메라', '디지털 도어락' 등이 적용되며, 각 동 출입현관과 엘리베이터 내부,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에는 200만 화소의 CCTV가 설치된다. 에너지 절감시스템으로는 에너지관리시스템(HEMS)이 적용된 '통합형 월패드'를 비롯해 '일광소등스위치',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등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단지는 쾌적함을 더해 줄 친환경 설계에도 힘썼다. 고효율 필터로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HEPA필터를 장착한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을 적용해 집안에서 언제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했다.

■ 사전예약제&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4월 7일 1순위 청약실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의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단지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동시에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유니트별 가상현실(VR) 영상과 입지, 단지 배치, 특장점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의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전국 누구나 청약 통장 필요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없어 바로 전매가 가능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향후 청약일정으로는 먼저 아파트의 경우 4월 6일(화)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4월 7일(수) 1순위 해당지역, 4월 8일(목) 1순위 기타지역, 4월 9일(금) 2순위 청약접수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받는다. 이후 4월 15일(목)에는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고, 4월 27일(화)부터 4월 29일(목)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는 4월 5일(월) 진행되며, 4월 6일(화) 당첨자를 발표한 뒤, 4월 7일(수)과 4월 8일(목) 양일간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의 견본주택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17-7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4년 10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053-255-9170〉

■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단지 개요 - 사업지 위치 : 대구시 중구 태평로3가 165-2번지 외 25필지

- 규모 :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총 392세대

- 아파트 320세대 : ▲84㎡A 91세대 ▲84㎡B 44세대 ▲84㎡C 44세대 ▲84㎡D 47세대 ▲84㎡E 47세대 ▲84㎡F 47세대

- 주거형 오피스텔 72실 : ▲84㎡OA 72실

박류석/대기자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대구의 강남 수성구 더블역세권 '수성 위버센트럴' 조합원 모집

(가칭)수성2가지역주택조합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 들어서는 '수성 위버센트럴' 아파트의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 집값이 치솟는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25-3번지 일원에 664가구(예정)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소형화되고 있는 주거 트렌드에 맞춰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되며 1군 브랜드가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

수성 위버센트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

축에 비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며 조합측에서 시행사 역할을 맡아 부가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해 일반 아파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난해 7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조합 운영이 투명성이 강화되고 해산도 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단지가 들어서는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알려져 있다. 대구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 신규단지 완판, 미분양 감소 등 호조세도 이어나가고 있어 미래가치가 높다. 실제 KB부동산 아파트시세통계

에 따르면 올해 2월 대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1131만원으로 전년 동월(967만원)대비 17%나 올랐다.

뛰어난 입지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수성 위버센트럴의 반경 2km 내에는 대구 백화점, 수성세무서 등의 행정·쇼핑 시설을 비롯해 병원, 은행, 우체국, 시장 등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 잘 조성돼 있다. 이 밖에도 단지는 바로 앞에 동일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등을 품은 학풍이 단지인데다, 학원이 대거 밀집해 있는 범어동과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 환경까지 갖췄다.

우수한 쾌속 교통망도 자랑한다. 단지는 대구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과 3호선 수성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아파트로 두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시내 주요 지역으로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신천대로, 달구벌대로, 신천동로, 동대구로 등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 일대로의 광역 접근성도 뛰어나다.

다양한 자연 공간을 갖춘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단지 인근으로는 산천이 위치해 있어 산천 수변산책로를 통해 쾌적한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대형 근린공원인 범어공원, 야시골공원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신천수변공원, 수성못유원지 이용도 용이해 4계절 에코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다양한 특화 설계도 적용된다. 단지 내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변정원의 조성 계획이 있고,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게다가 대구 최초로 AIoT 음성 솔루션이 적용돼 음성 인식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한 관리가 가능하다. 자동차 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스마트커튼 등 편의 기능과 천장형 환기 정정 시스템 Sys Clean, 방문자 확인 등 청정·보안 시스템을 간단히 통제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이처럼 훌륭한 입지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라며 "수성 위버센트럴은 연일 매매가가 치솟는 수성구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금 부담 없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 위버센트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3 황금빌딩 2층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방역을 위해 홍보관 내에 방역게이트 설치 및 방문예약제로 관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류석/대기자

